

‘한옥 건축’으로 즐기고 머무는 지역, ‘가보고 싶은 중소도시’ 늘린다

- [국정과제 49] ‘5극 3특’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- 도시건축디자인 혁신
- 한옥 명소·산업·인재 육성 확대... 지역 매력 키워 지역 경쟁력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끄는 한옥 건축 활성화*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.

* 한옥은 대한민국 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 경관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

- 최근 K-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,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,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.

□ 첫째, 한옥 대중화를 이끄는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.

-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*를 양성해 왔으며, 이를 통한 총 1,580명의 전문 인력은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,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.

* 현재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서양 현대건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, 한옥 건축은 1개 학기 1개 선택과목인 한국건축사 수업이 대부분

☞ 안전하고 편안한 한옥을 제대로 건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

-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경에 100명 규모로 진행할 한옥 건축 설계와 한옥 건축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(국비 지원 : 총 3억원) 운영 기관 공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- 한편,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, 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, 청년 및 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모색한다.
- 둘째, 한옥 현대화에 힘쓴다. 한옥 통계를 현실화하고, 일부 지자체(경북, 광주, 서울)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.
 - 한옥 건축 지원,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, 자재 표준화 수준 제고를 통한 건축비 절감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.
 - 특히 한옥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 내화와 내진, 무장애와 녹색건축 등 법적 요건에 맞는 한옥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, 현행 한옥건축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조성을 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명소 확충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.
 -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한옥 설계-자재(부재) 제작과 유통-기술 전문 교육-시공-유지보수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‘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(클러스터) 조성 방안을 구상한다.
 - 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마련할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(2026~2030)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최아름 건축문화경관과장은 “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있는 건축자산”이라면서,
 - “앞으로도 한옥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져 사랑받는 명소이자 일상 공간이 되도록 한옥 건축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	책임자	과 장	최아름 (044-201-3775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김보민 (044-201-3779) 이승희 (044-201-3783)